

창립 20주년 맞은 '좋은벗 풍경소리'

힘든 현실에도 오늘 우리 찬불가 만듭니다



좋은벗풍경소리의 '붓다콘서트' 모습



그동안 풍경소리가 내놓은 찬불가 음반 표지



풍경소리를 이끌어 온 이종만 작곡가

“어린 벗들에게서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을 노래에 실어 이 세상을 맑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찬불가의 창작과 보급에 힘쓴 불교계 대표적인 찬불가단체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덕신)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풍경소리는 찬불동요 제작과 보급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매년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해왔다. 1995년 12월 창립된 이후 정기적으로 찬불가 음반을 발표하고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앨범 제작도 꾸준히 참여했다. 그 음반만 벌써 40집에 달한다. 1996년 4월 첫 선을 보인 찬불동요집 '풍경소리'에 담긴 16곡의 동요는 불교계가 일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와 강습회 교재로 활용돼 사찰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도 각광받아 왔다.

'좋은벗풍경소리'의 전신인 '기회 숲'을 창립한 작곡가 이종만 기획 실장은 "정말 불교계에 필요하다고 생각돼 무작정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질적인 재정문제 등으로 음반 제작도 만만치 않았지만 전법과 포교에 대한 열의로 이를 이겨왔음이 짐작된다.

이종만 실장은 "대중들이 함께 불러주는 우리 찬불가를 들을 때마다 환희심이 솟아난다"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기쁨 하나를 버려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불교계에 '좋은벗풍경소리'가 남긴 것들

은 적지 않다. '풍경소리' 음반을 통해 발표된 찬불동요가 600여곡. 여기에 총재 지현 스님과 회장 덕신 스님 등 동참한 작사·작곡가만도 100여 명에 달한다. '길을 떠나자' '오늘은 좋은날' 등 유명 찬불가가 좋은벗 풍경소리를 통해 세상에 선보여 졌다.

2007년부터는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붓다콘서트'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2012년부터는 매일 한 차례씩 열려 불교음악을 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밖에 1970년대부터의 찬불동요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했으며 2005년에는

재정난으로 '풍경소리' 10집을 끝으로 제작 중단을 결정했다. 이 시기 5년간 10번이나 사무실을 옮기기도 했다.

찬불가의 맥이 끊겨서는 안된다는 불교 각계의 노력 끝에 겨우 사업을 이어왔다. 2004년 후원회 결성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하지만 창립 당시부터 있어왔던 재정적인 문제는 풍경소리의 행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일 진행돼 온 붓다콘서트도 축소돼 3개월에 1번 진행된다. 디지털 음반이 대체로 자리잡은 현재 상황에서 찬불동요집 판매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유료판매가 매회 2000장 중 30여 장에 불과해 음반판매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종만 실장은 "20주년을 맞아 다시 2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불교음악인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벗풍경소리'는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20주년 기념 붓다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찬불동요음반 1집에서 41집까지 참여한 가수들과 풍경소리 홍보대사 가수 우순실, 소프라노 정영스님, 테너 허철영, 중창단 소리마루, '제2의 송소희'를 꾸민 차세대 국악소녀 강경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찬불가를 불렀다.

이와 함께 찬불동요집 '풍경소리 41집'도 배포됐다. (02)723-9836 후원: 국민은행 023501-04-187398(풍경소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995년 창립 이후 꾸준한 음반 발매

20주년 맞아 '풍경소리' 41집 펴내

발표곡만 600여 곡, 100여 작곡가 동참

'재정난'에 붓다콘서트 등 축소 위기

찬불동요 108곡을 선정한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으로 펴내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07년 이종만 실장은 행원문화상 예술상, 2011년 좋은벗풍경소리가 포교원으로부터 공로패, 2014년에는 회장 덕신 스님이 제2회 불교음악상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모두가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이뤄낸 결과였다. 풍경소리는 창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IMF금융위기를 겪었다. 매년 두장의 음반을 냈지만, 2000년 결국

<숫타니파타>의 가르침 영상 미학으로

권중목 감독의 불교독립영화 '실론, 세렌디피티' 개봉

롯데시네마 인디플러스서 상영

'숫타니파타' 찾기 위한 여정 다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추천 예술영화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을 영상 미학으로 표현한 불교예술영화 '실론, 세렌디피티'가 12월 14일부터 롯데시네마 신사역 브로드웨이 인디플러스에서 상영된다.

불교에서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 있다했다. 여기서 권중목 감독은 '실론'(Ceylon, 스리랑카)를 꿈과 희망으로 표현해 영화 속 주인공 허수남이 이 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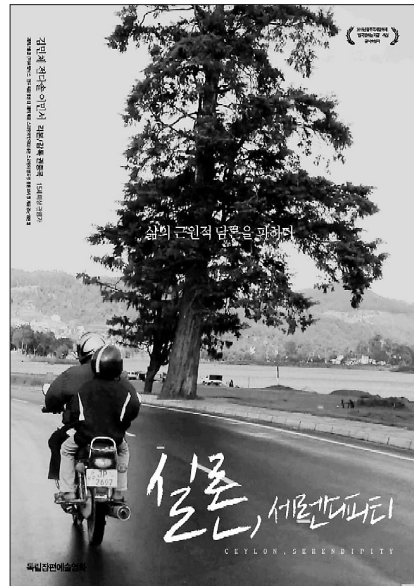
'실론, 세렌디피티'는 30만명 관객석을 유지하고, 8년째 장기공연을 하고 있는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주연배우 김민체 씨가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또, 연극배우의 실생활과 연극의 내용과 영화내용의 이중포맷(Two Frame)방식으로 영

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방식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대학로의 중견연극인과 주스리랑카 대사님의 까메오 출연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독립영화로는 드물게 2년간의 제작기간, 해외로케이션, 스리랑카 철도청, 스리랑카 콜롬보시청, 주스리랑카 한국 대사관, 서울영상위원회의 제작지원으로 여행으로도 접하기 힘든 서남아시아의 배경으로 영상이 전개 된다.

이 안에서 숫타니파타, 반야심경에서 공공으로 전하는 가르침과 사상이들이 공공으로 모색한 인간의 본질적 삶에 대한 태도를 어려운 언어와 해설이 아닌 영상과 작은 일상생활, 연극의 전개방식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한다.

권중목 감독은 "세렌디피티를 통해 3명의 실론왕국의 왕자가 인도를 여행하며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관객들에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자 했다"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권 감독은 "인간의 감성에 직관적으로 투영하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으로부터



다소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통의 독립예술영화는 30대 젊은 감독의 데뷔작이지만 50대 권 감독의 노련한 감성전개와 영상미가 돋보인다. 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 되새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노덕현 기자

생전예수재 지화 장엄전 '연화장 세계' 펼쳐져



이번 불교지화장엄전시전에서 선보인 1890년대 불암사 감로맹화 재현작. 한승이 지화를 만들기 위해 전통지화 사상 최대인 지름 50cm 종이가 쓰였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장 정명)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생전예수재 지화장엄전시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전에는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정명 스님의 작품 11종이 선보였다. 잊혀져가는 전통 예수재를 복원하고자 지화장엄을 위해 제작한 지화는 모두 전통한지에 자연염료로 천연염색하고 옛 기법으로 만든 것이다. 장엄 스님은 "예수재의 원형의 온전한 복원을 위하여 1890년대 불암사 감로맹화와 1900

년대 흥국사 감로맹화에 지화를 일부 재현하였고 일부는 창작하여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이번 작품 중 불암사 감로맹화를 재현한 지화는 한 승이 지화를 만들기 위해 지름 50cm로 재단해 살잡기를 한 것으로 전통지화중 가장 큰 지화다.

또 지화장엄전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전통연꽃 지화 총 30여 점이 함께 전시됐다.

노덕현 기자

• 공단등(6cm) @2,500원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황금등(8cm) @3,3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90,000원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40cm (50구) @73,000
- 23cm (50구) @65,000
- 50cm (50구) @75,000
- 25cm (50구) @65,000
- 1 m (50구) @90,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2 m (25구) @80,000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가 900원
• 포장: 봉투 삽입

삼배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10×43cm)
10,000원 2도(7×3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7.5×30cm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60×7cm (빨강/노랑)
• 포장: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재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흰색 / C: 노랑-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흰색 / D: 분홍- 참 좋은 인연입니다.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010-2094-2991-09 ◆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